

‘비대면 금융시대’...365코너·ATM 증가

환전·해외송금 가능...모바일 앱으로 은행 간 교차 이용도 전남도, 금고 선정 때 무인점포·ATM 수 평가 항목 신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무인점포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촌 마을이 많은 전남지역 365코너는 은행거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시스템에 공식된 광주·전남·전북지역 은행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69개로 3년 전 479개 보다 10개(2.1%) 감소했다. 은행점포 수는 줄고 있지만 지역은행이 설치한 365코너와 ATM·CD 등 자동화기기는 점차 늘고 있다. 광주은행이 브랜드 제휴를 맺어 전국에 설치한 자동화기기는 102개(2015년)→125개(2016년)→137개(2017년)→141개

(2018년)→142개(2019년)→147개(2020년) 등 5년 새 44.1%(45개) 늘었다. 5월 말 기준 광주은행 자동화기기는 광주 90개·전남 56개와 서울 1개 등이 설치돼 있다. 광주은행은 올해 들어 전남지역에 2곳의 365코너를 신설해 광주 178개·전남 68개 등 총 246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지역 농·축협(품목조합 포함)은 146개 회원조합을 기반으로 한 폭 넓은 금융망을 토대로 438개에 달하는 무인점포(농협은행 포함)를 지니고 있다. 전남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ATM은 1994대로 점포수(475개소)의 4배가 넘는다. 광주지역에서는 농협은행 30곳과 14개

지역조합이 13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농협은행은 28개 무인점포(열린코너)와 174개 ATM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 농·축협은 총 446개의 ATM을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추세가 확산하면서 ATM과 무인점포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집 근처 ATM에서 달러를 인출하거나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분야 본인 인증·신원 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인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율 체계를 논의하기도 했다. 연말까지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앱을 내려받아 자동화기기 입출금과 가맹점 결제, 잔돈 적립 등 서비스를 모든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

비자의 예금 계좌 보유 은행과 가맹점의 거래 은행이 서로 달라도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고, 참여 은행 간 CD·ATM 교차 이용도 할 수 있다.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은행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달 초부터 24시간 인공지능 상담서비스인 챗봇 ‘베어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시범 운영되며 이달 중 인터넷뱅킹으로 확대 실시된다. 오는 9월에는 ‘보이는 ARS’(음성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편 전남도 금고 선정 때 무인점포·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 이달 안에 신설되면서 각 은행의 자동화기기 추가 설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84.29 (+2.42)	↑ 금리(국고채 3년) 0.902 (+0.008)
↑ 코스닥 753.04 (+3.73)	↓ 환율(USD) 1204.80 (-2.30)

광주은행, 기술혁신 기업에 금리 감면 대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



송중욱(오른쪽) 행장과 김삼호(가운데) 광산구청장, 김영춘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8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산구·기보와 금융지원 협약 무담보 3%대 금리 대출 가능

광주 광산구 중소기업들이 무담보·무신용으로 3%대 초반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8일 광산구청에서 광산구, 기술보증기금과 '기술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광산구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금리를 최소

0.7%포인트 감면하며, 기술보증기금은 1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일반 대출이 필요한 기업은 보증료 0.7% 인화와 추가 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에서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광산구 소상공인의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위한 광산경제백신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송행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에 여름 잇템 선글라스 수난

선글라스·여름의류 등 매출 ↓ 백화점 각종 할인 행사 진행

"매일 쓰는 마스크 때문에 올해는 선글라스 못 끼겠습니다." 여름철 대표 상품 선글라스가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한 5월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틀 선글라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줄었다. 뿐만 아니라 선캡(모자) 매출도 12% 감소했으며, 반팔·반바지 등 여름의류 역시 11% 매출이 줄었다.

선크림과 선로션 등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화장품만 매출이 31% 올랐다. 여름마다 선글라스가 백화점 매출 신장을 끌어올렸던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실제 지난해 5월10~20일 ㈜광주신세계 선글라스 매출(전년 동기비)은 점포 전체 매출 증가율 10%를 웃도는 15%를 기록했다. 대표적 여름 상품들이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대형매장들은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각종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9일까지 '베디베로' 선글라스를 최대 80% 할인 판매하고,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오는 14일까지 '페라가모' 선글라스를 30% 할인된 30만원대에 내놓는다. /백희준 기자 bhj@



"홈 트레이닝에는 런닝머신이 제격" 8일 ㈜광주신세계 지하 1층에서 한 고객은 프리미엄 운동기구 임시매장인 '고고런'에서 심박수·체지방 측정이 가능한 런닝머신을 체험하고 있다.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 열풍에 힘입어 광주신세계는 이 매장을 7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재배면적 당 쌀 생산량 장성 최고

지난해 10a당 491kg 생산

지난해 면적 10a(1000㎡) 당 쌀 생산량은 장성군이 가장 많고 완도군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평균 10a당 논벼(쌀) 생산량은 471kg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10a당 생산량은 22개 시·군 모두 줄었다. 작황이 가장 좋은 곳은 10a당 491kg을

생산하는 장성군으로 나타났다. 구례(490kg), 광양(489kg), 순천(488kg), 영광(486kg), 담양·곡성(각 481kg), 여수·나주(각 480kg), 화순·함평(각 477kg), 영암(476kg), 목포·무안·신안(475kg), 해남(471kg), 강진(468kg), 고흥(459kg), 장흥(458kg), 보성(454kg), 진도(427kg), 완도(377kg)가 뒤를 이었다. 쌀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1만 8083ha에 달하는 해남군이 차지했다. 전남 지역 쌀 총 재배면적은 15만3919ha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

중기부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오늘부터 22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제1차 스케일업 금융'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도약)에 필요한 대 규모 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다.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기간은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 평가 B+ 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성장성과 기술성,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진다. 발행금리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 종류에 따라 차이(3~5%대)가 있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비대면 분야 등 디지털 기반 산업 외에도 기간산업과 투자 소외 영역(일반제조, 지방)의 유망 중소기업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